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글로벌 홍보 나서

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FIDA Pre-World Cup in America’ 참가해 홍보 전개

전주시가 오는 9월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글로벌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Palm Springs)에서 열린 ‘2025 FIDA Pre-World Cup in America’에 참가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주관하고 Palm Springs Unified School District(팜스프링스 통합교육구)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코스타리카, 나이지리아 등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 10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 대회로 펼쳐진다. 프레월드컵 성격의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본 조식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드론축구 경



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Palm Springs)에서 열린 ‘2025 FIDA Pre-World Cup in America’에 참가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기뿐만 아니라 드론축구 필름 페스티벌과 군집비행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드론축구 중구도시인 전주에서 개발돼 표준화된 드론축구 경기운영시스템과 드론축구 공인볼도 소개될 예정이다.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대한민국 드론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번 대회의 드론축구 2개

종목(Class40, Class20)경기에 출전해 속도와 정확성을 겨루는 경기로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 주력산업인 탄소와 드론, ICT기술을 융복합해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축구기는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만 2700여 개 팀이 결성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시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은 드론축구의 세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화 마련 △회원국 간 협력 증진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안승용 대한드론축구협회(KDSA) 회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프레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드론축구의 매력을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참가국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2025 FIDA Pre-World Cup in America’를 통해 드론축구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드론 레저스포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고객만족도 90.3점

2024년 지방공기업 조사서 자체 최고점 경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2024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90.3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경신했다.

지난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공단이 획득한 점수 90.3점은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 85.2점보다 5.1점이 높고, 전국 시설관리공단 평균 89.2점보다 1.1점 높은 점수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공단 설립 이듬해인 2009년 76.6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87.0점, 2023년 86.8점을 기록했다.

시설별로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가 96.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주승화원이 95.7점, 전주승마장이 93.4점으로 뒤를 이었다. 월드컵골프장은 85.2점으로 전년 대비 16.8점이 올라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공단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소통 창구인 ‘백제대로 310’과 ‘365 소통 광장’을 운영하



고객만족도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신축 클럽하우스

고 있으며, 고객 모니터단, 자체 만족도 조사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원을 10% 줄이고, 시민 만족도를 10% 높이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텐넨틀링(10-10) 달성하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비스 개선에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고령친화사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정성길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맞춤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성길(서신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



화적 환경을 구축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성길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층을 위한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고령친화 산업이 더욱 육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중앙동 지사협, 사랑의 반찬 나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미숙)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손도손 사랑의 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손도손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은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5년차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세대에 매일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에코시티 주민 독서문화 거점 탄생

에코도서관 개관식 개최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주민들의 독서문화의 거점이 될 에코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위치한 에코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도서관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에코도서관은 주민들이 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병공원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개관 시간 연장사업을 통해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환경을 특화 주제로 정한 에코도서관에는 어린이 생활용장작소 ‘뚝딱’ 공간도 조성돼 어린이들이 생활용 재료와 여러 가지 공예 물품을 활용해 창작품도 만들 수 있다. 또, 기후환경과 생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도서관과 비교해 어린이 대상 책과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였으며, 어린이 열람 공간과 성인 열람 공간이 함께 위



전주시는 지난 21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위치한 에코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도서관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치해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도서관은 전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714-3543)로 문의하면 된다. 매주 금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이에 앞서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춘 도서관도시답게 12개 시립도서관 중 9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환했으며, 이번 에코도서관 개관에 이어 아중호수도서관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에코도서관이 책과 읽을거리를 누리고 함께 읽고 함께 소통하는 전 세대의 복합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겨 찾는 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